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22년 (불기 2566년) 11월 1일 (화)

<http://dongguk.or.kr>

제261호

함께 하나 되는 축제 ‘동국인의 밤’ 개최

3년만에 재개 ... 12월 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하겠습니다.

총동창회 104주년을 자축하고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를 위해 제2도약을 다짐하는 ‘2022 동국인의 밤’ 행사가 12월8일(목) 18시부터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3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부득이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행사 컨셉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추진해 온 비전 액션플랜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동창회 활동방향을 제시하여 동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기획하고 있다.

또 동문들이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의식행사를 최소화하고 공연으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시 낭송과 합창으로 개막

건학 100주년 기념 신경림(영문54) 시인의 축시 ‘씨앗 뿌리고 나무 심어 어언 백년’을 낭송하고 서정주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푸르른 날’을 동국동문합창단이 합창하면서 식전 공연의 서막을 열게 된다.

이어서 간단한 의식행사와 비전 액션플랜 추진성과 영상시청, 2022년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만찬과 함께 문화공연, 행운권 추첨 등이 예정되어 있다.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식

2022년 자랑스러운 동국인대상과 각 부문별 수상자

는 11월말 상별위원회(위원장=문선배)를 열어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해서 선정한다.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부상으로 행운의 열쇠를 수여한다. ‘동국인의 밤 행사’가 열리지 못한 2020년에는 시상식을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진행했고, 2021년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단위 동창회별 사전 예약

참가신청은 사전 참석 예약제로 테이블당 8~10명 기준으로 단위 동창회 신청을 우선해 선착순 접수를 받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입금자에 한해 좌석을 배정하며 복장은 정장 차림을 권장한다.

(총동창회 사무처 : 02-733-0303)

※ ‘동국인의 밤’ 참가비 : 10만원(인), 입금계좌 : 하나은행 231-890041-26804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새로운 100년 비전 ... 역사창조의 디딤돌 역할

‘동국인의 밤’에서 액션플랜 추진성과 발표

총동창회는 2019년 10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 비전체계를 만들어 인재 만해마을에서 임원 워크숍을 갖고 새로운 100년 비전을 선포했다. 지난 10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총동창회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취지를 담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활동을 펼쳐나갔다.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겪으면서 소통공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고자 펼쳐온 총동창회 비전 액션플랜에 대한 경과와 추진성과를 정리했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교와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했다. 모교가 2021년 대학평가에서 처음 9위에 오르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 ‘취업 걱정없는 대학’에 인식의 공감대를 같이하고 총동창회와 동문들이 역량을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생하는 동창회’의 지향점을 만들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모든 일상이 바뀌었다. 총동창회는 모임이 제한된 상황에서 동문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소통을 강화했다.

35만 동문시대, 이제는 우리가 역사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2010년 발행이후 10년 만에 회원명부인 ‘동국인명록’을 발간했다. 1908년 모교 전신 명진학교 첫 졸업생 이후 2018년 졸업생까지 110여년 동안 배출된 졸업생수는 32만명이다. 2020년 봄학기 졸업생과 회칙상 회원인 교수, 직원, 전자기산원, 미래융합교육원(평생교육원), 특수대학원 특별과정 등을 포함해 35만 동문시대를 선언했다.

‘찾아가는 동창회’를 표방하며 전국 지부(회)를 방문해 동문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활동을 펼쳐나갔다. 단위 동창회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2019년 5월, 부산지부를 시작으로 경주직할동창회, 대구경북지부, 대전충남지부, 경남지부, 강릉지회, 광주전남지부, 전북전주지부 등을 방문했다. 2020년에는 경주에서 전국 지부지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을 공유하면서 조직을 강화해나갔다. 이후 강원춘천지부와 인천지부를 격려했고 세종지부를 신설했으며 제주지부와 수원지회, 천안지회를 재건하는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 학과, 학번, 대학원 회장단 간담회 뿐 아니라 다양한 동호회 모임에도 관심을 갖고 소통공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동문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는 총동창회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에 힘쓰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동문 서비스 질을 강화해 ‘참여하는 동창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동문들의 정성으로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에 생활 밀착형 복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학기금도 조성하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자 동문 참여형 플랫폼인 동창회 복지몰을 구축했다.

총동창회 임원체계는 ▲고문 ▲부회장 ▲지도위원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를 위해 차세대 주역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임원진을 개편해 80학번이 중심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90학번과 2000학번이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역동적인 동창회’ 토대를 마련했다.

또 미래 동창회 주역들을 육성하는 재학생 장학사업을 위해 동국장학회 임원진을 개편해 제5대 이사회를 출범시키는 한편, 동국장학회원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은 경제·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미래 변화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도 위기가 닥치고 있다. 총동창회는 근간이 되는 모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동문들의 다양한 경험과 재학생의 재능과 열정이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실시간으로 동창회 소식을 전달하는 뉴노멀시대 참여형 프로세스를 구축해 온라인 소통을 정착시켰다.

아울러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와 리멤버 등산대회를 통해 학번 동기회 결성을 지원하고 골프, 등산, 축구, 합창 등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관심과 참여로 하나가 되는 동문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1910~1920년대 태동기를 지나 1930~1970년대 확장기를 거쳐 위상을 갖추고 1980~2010년대 성장통을 겪으며 부흥기를 맞은 총동창회는 2020년대 질적인 성장을 위해 품격을 갖춘 성숙한 조직으로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하는 미션을 제시했다.

그리고 소통공감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맞춤형 활동으로 모교에 대한 자긍심 제고와 동문 유대관계의 중심적 역할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의 디딤돌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35만 동문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빛나는 동국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찾아가는 동창회 ▲참여하는 동창회 ▲역동적인 동창회 ▲상생하는 동창회를 디딤돌 삼아 ▲동국인이 자랑스러운 총동창회로 도약을 다짐했다.

동문님께서 정성껏 납부해주시는 후원금을 소중히 사용하면서 새로운 100년 역사창조의 디딤돌을 차곡차곡 마련하겠습니다.

연회비는 1년에 한 번,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발전합니다.

동국장학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 일반회원 : 3만원 (평생회비로 납부시 50만원)
- 고문 : 1백만원 이상 • 부회장 : 1백만원 • 지도위원 : 3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 이사 : 10만원

● **납부방법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국민은행 : 006001-04-237869
- 우리은행 : 1005-302-718184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매월 1만원 이상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500분을 모십니다.

후원에 동참하실 동문께서는 총동창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장학계좌 (예금주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 국민은행 : 501601-01-141914
- 우리은행 : 1005-603-886719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총동창회 사무처 (02-733-03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사회 저변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소통공감 위한 부회장 정책 간담회



66) 부회장은 “아직까지 동창회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미(정외70) 부회장은 “장학회 보유금도 답보 상태에 있다.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동

총동창회는 7월15일 충무로 스테이락 호텔에서 부회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새로운 100년 비전체계에 따른 액션플랜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소통공감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동창회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지부지회 회장단, 학과별 회장단, 대학원 회장단 등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실시해 왔다”며 “간담회를 통해 동문사회 저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으면서 동창회에 보내는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임선기 사무총장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총동창회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관심업무 토의를 하면서 백우현(화학

창회관 건립기금과 장학회 기금을 십시일반으로 확충하는데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김희배(공경81) 부회장은 “모교에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유능한 교수진이 필요하다. 학교 운영에 종단의 영향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경남지역 동문들의 의견들을 전달했다.

또 지역 동창회와의 소통강화와 젊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한편 참석자들이 연회를 통해 친분을 나누는 가운데 백우현 부회장은 조부가 모교 2대 총장을 역임하고 총동창회 2,5,6대 회장을 역임한 백성욱 박사임을 밝혀 모교와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함을 알렸다.

79~89학번 정책 간담회, 90학번 견인



또 정기모임보다 소모임을 활성화해서 자주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노하우를 밝혔다.

송인모(경행) 83학번 회장과 송철근(교육) 85학번 회장도 재미있고 즐거운 소모임 사례들을 열거하며 호응했다.

79학번에서 89학번까지 회장단 정책 간담회가 7월21일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총동창회는 80학번대 회장단과 차세대 성장동력인 90학번대를 견인하는 관심업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면서 코로나로 단절된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와 리멤버 등산대회 등 오프라인 모임 복구에 나섰다.

김상식(도시행정) 79학번 사무국장은 “동기회 모임도 재미가 있어야 활성화 된다”며 “재미”를 강조했다.

백요희(교육) 81학번 회장은 “동기회 활성화를 위해 고민이 많은데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동기회 모임이 가장 활성화 된 82학번 이상민(농경) 회장은 “초중고 동창모임에 비해 대학 동창모임은 융합하기가 힘들다.

회장이 조건없이 금전적으로 마중물을 붓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진준(전자) 81학번 부회장은 “대부분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를 기점으로 동기회가 결성되는 만큼 모교(대외협력처)와 총동창회에서 명분을 가지고 중심이 되는 동문들을 발굴해 동기회를 결성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권준(통계) 88학번 회장은 “88학번은 코로나로 동기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오늘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상민 82학번 회장은 “11월25일 82학번 송년모임에 학번 회장단을 초청해서 활성화된 82학번 동기회의 기운을 나눠드리겠다”고 말해 학번 간 교류 분위기도 조성했다.

79~89학번 동기회는 90학번대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이끌어 주고 리멤버 등산대회를 통해 총동창회의 중심세대로 역할을 하기로 결의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빛속에서 하나 되어 동국을 외치다

9년만에 동국가족 친선 골프대회 열려



윤성이 총장은 축사에서 “한 단계 성장한 모교의 빛나는 성과를 자축하면서 35만 동문의 역량을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총동창회와 함께 에너지즈 동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즈 동국으로, 혁신을

총동창회는 8월30일 용인시 기흥 태광CC에서 동국가족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2013년 제7회 대회를 실시한 이후 9년 만에 열린 행사로 전국에서 30팀(120명)이 참가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대회사에서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시를 인용한 것은 그 동안의 사정을 행간에 묻어 두고 다시금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고 싶기 때문이다”며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대회를 준비한 문선배 수석부회장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동문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넘어서는 대도약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용맹정진 동국인 기상 빛나

대회가 열리는 날, 비 예보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대회를 강행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고령 참가자인 전순표(53농학) 제24대 총동창회장이 라운딩 의지를 보이자 분위기가 반전되어 참가자들은 차례로 티오프 지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9홀까지만 돌고 중단할 상황에서도 끝까지 18홀까지 완주하자며 빛속에서 하나가 되는 감동을 연출했다.

단체전 우승은 84학번이 차지



골프장 사정으로 참가자가 30팀(120명)으로 제한됐지만 7080학번을 중심으로 53학번부터 11학번에 이르기까지 골

고루 참가했다. 여성 동문도 11명이 참가했고, 부산지부, 경주직할동창회, 대구지부, 강릉지회 등 전국에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는 경기조(단체전)와 친목조로 나눠 진행됐으며 △단체전 우승=84학번A △단체전 준우승=체육교육과 △개인전 우승=홍상민(체교93) △개인전 준우승=김선홍(경영93) △메달리스트=윤영미(가교84) △롱기스트=이춘섭(체교78) △니어리스트=유태우(식공79) △다버디=권오운(화공77) △다파=이건열(경행82) △다보기=손기범(행대원) 등이 차지했다.

역대 골프대회

- △ 제1회 : 03년 12월 8일 (금강C.C) △ 제5회 : 11년 5월 16일 (금강C.C)
- △ 제2회 : 04년 4월 26일 (금강C.C) △ 제6회 : 12년 5월 14일 (금강C.C)
- △ 제3회 : 06년 9월 18일 (금강C.C) △ 제7회 : 13년 5월 27일 (기흥골드C.C)
- △ 제4회 : 10년 5월 10일 (금강C.C) △ 제8회 : 22년 8월 30일 (태광C.C)

본회 후원 제7회 만해평화문학축전 성료



인해 3년 만에 재개되어 ‘만해사상의 실천’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과 문학향연을 펼쳤다.

행사를 주최한 만해사상실천연합은 지난 2015년故선진규(불교55) 법사의 발의로 창립된 이후 만해정신의 산실인 심우

만해 탄신 143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제7회 만해평화문학축전’이 8월29일 심우장에서 열렸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정신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던 행사는 코로나로

장에서 평화문학축전 행사를 개최해왔고, 올해 4월 관음종 종정 홍파 대종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해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재정비했다.

동국문학의 대동맥, 동국문학상 시상식

‘만해축전위원회’ 후원으로 만해마을에서 열리다



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2년 제35회 동국문학상 수상자로는 윤고은(문창99) 동문이 선정됐다.

문정희 시인과 김춘식, 박혜경, 이수형 평론가의

제35회 동국문학상 시상식이 10월22일 만해 한용운 시인의 삶과 사상이 깃들어 있는 인제군 만해마을에서 열렸다.

시상식을 위해 동국문학인회(회장 김금융, 국문74) 문인 30여명은 1박2일로 문학기행을 겸해 만해마을에 도착했다.

동국문학인회는 모교 출신 문인들 모임으로 1988년부터 동국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작품 활동이 우수한 모교 문인들

엄정한 논의 끝에 장편소설 『도서관 런웨이』를 수상작으로 뽑고 우리 시대의 삶을 결혼과 보험이라는 상상을 통해 풀어낸 윤고은의 『도서관 런웨이』는 시사적 소재와 참신한 스토리텔링의 적절한 결합을 보여주었다는 심사평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만해축전위원회 후원으로 동국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졌다. (관련기사 12면)

찾아가는 동창회 ... 천안지회 복원

새로운 집행부 구성해 위촉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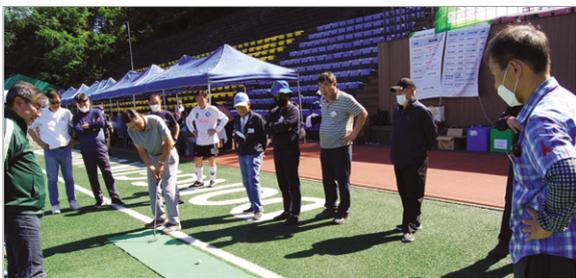
면서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였다.

천안지회를 복원하고자 1년여에 걸쳐 집행부를 맡아줄 동문을 수소문한 끝에 이운길(경행76) 동문이 회장을, 송종석(경영87) 동문이 사무국장을 맡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모임을 갖고 위촉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찾아가는 동창회’ 활동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천안지회 활성화와 함께 중앙회와의 교류를 강조했다. 이운길 천안지회장은 “12월8일 ‘동국인의 밤’ 행사에 천안지회 동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총동창회는 단위 동창회를 복원하는 ‘찾아가는 동창회’의 일환으로 9월29일 천안을 방문했다. 천안은 30여명의 동문들이 친목을 도모하며 동문모임이 활성화된 지역이었으나 코로나 기간을 거치

ROTC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



ROTC 총동문회(회장 윤재민)는 9월 24일 모교 만해광장과 대운동장에서 제

12회 한마음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기 원용선(영문59) 총명예회장부터 재학생인 61기, 62기 후보생들까지 150여명이 함께 했다. 개회식에 이어 3점식 게임과 농구 경기를 펼치고 상록원에서 점심식

사를 한 후 대운동장에서 축구, 족구, 골프 퍼팅게임 등으로 친목을 다졌다.

식품생명공학과 만해광장서 체육대회



식품생명공학과 동문회(회장 이범주)는 10월16일 모교 만해광장에서 선후배 동문, 교수, 재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해

체육대회를 갖고 단합을 과시했다. 1961년 국내 최초 개설학과로 3,500여명의 졸업생이 식품공학과 61년의 역사는 한국 식품공학의 역사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체육행사 현장을 방문해 참석한 동문들과 환담하고 격려했다.

APP 총동문회 300여명 축제 한마당



APP 총동문회(회장 김종우)는 10월23일 모교 만해광장을 가득 메운 함성으로 가을 하늘을 출렁이게 했다.

주제체육대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APP 총동문들은 3년 만에 열려 더 기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화합으로 하나 되는 APP인’ 바로 그 모습과 다름이 없었다.

열정 넘치는 동국동문합창단 격려



식(건축90), 허태훈(건축90) 동문은 당일 합창단의 축하공연을 보고 어느새 신입회원으로 가입해 화음을 맞추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모교에서 갖는 연습에 항상 30여명의 동문들이

총동창회는 10월18일 ‘2022년 동국인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국동문합창단(단장 강석우, 연영77)을 방문해 격려했다. 2017년 개교 111주년을 기념해 탄생한 합창단은 단원들도 계속 늘어 현재 100여명을 넘어서다.

90학번 홈커밍데이에 참석했던 한상

이 참석한다고 박성기(국문82) 약장은 말했다. ‘2019년 동국인의 밤’ 행사를 빛내준 동국동문합창단은 모교 행사와 동문들 행사를 찾아다니며 분위기를 살려주는 동국의 자랑이다. 열정 넘치는 동국동문합창단의 무대를 12월8일 ‘2022년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기대해본다.

대구경북지부, 영천 은혜사 방문



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로서 행정대학원 동문회장 법타스님(인철67)께서 조실로 계시는 곳이기도 하다. 대구에서 단체버스로 이동한 동문들은 법타스님의 설법강연을 듣고 점심공양을 한 후 영덕 일원 관

대구경북지부(회장 손기범, 행대원91) 동문 30여명은 7월23일 영천 은혜사를 방문하고 주변관광을 하면서 정기모임을 실시했다.

경북의 대표적인 사찰인 영천 은혜사

광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법타스님은 “목석산 학연들과 어울림이 기쁨과 보람을 주었다”며 행사를 준비한 손기범 회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동행라이온스 하반기 장학금 수여



원94)은 10월28일 모교 상록원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상반기 12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모교 학부생 13명과 대학원 3명 등 총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동행라이온스클럽(회장 홍종표, 행대

모교 윤성이 총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모교, 대학 브랜드 평판분석 5위 올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 10월 평판분석 발표

2022년 10월 11일						
순위	브랜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브랜드평판지수
1	서울대학교	1,459,199	1,792,538	1,472,984	2,712,786	7,437,507
2	연세대학교	1,807,178	2,188,843	1,151,639	1,087,671	6,235,331
3	고려대학교	1,310,891	1,924,245	1,045,951	1,576,204	5,857,291
4	중앙대학교	1,790,539	1,444,058	826,063	830,099	4,890,759
5	동국대학교	1,776,793	1,383,792	633,481	784,737	4,578,803
6	성균관대학교	1,921,483	908,270	649,296	878,990	4,358,040
7	건국대학교	1,595,207	1,291,382	674,941	720,021	4,281,551
8	단국대학교	1,754,366	1,229,048	511,468	773,289	4,268,171
9	한양대학교	1,433,154	1,370,008	720,416	742,733	4,266,311
10	가천대학교	1,455,389	1,309,617	476,034	880,617	4,121,658
11	경희대학교	1,048,810	793,528	921,974	985,087	3,749,400
12	부산대학교	1,177,777	964,010	625,503	729,288	3,496,578
13	경북대학교	1,600,995	903,563	579,139	253,174	3,336,871
14	홍익대학교	1,273,995	889,433	481,277	614,816	3,259,522
15	전남대학교	1,051,173	904,667	434,615	863,014	3,253,469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제공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매월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대학교 브랜드 평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2년 10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모교가 5위를 차지했다. 9월11일~10월11일 브랜드 빅데이터 232,025,267개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다. 금년 모교 순위는 ▲1월=24위 ▲2월=10위 ▲3월=14위 ▲4월=12위 ▲5월=9위 ▲6월=13위 ▲7월=13위 ▲8월=11위 ▲9월=8위 ▲10월=5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디지털 행태를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고 한국브랜드모니터 소비자위원이 진행한 채널평가도 포함했다.

2022 가을 학위수여식 “자비 잊지 말길”



모교는 8월25일 교내 중강당에서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박사 105명, 석사 546명, 학사 1,245명 총 1,896명을 배출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수여식은 △학사보고△총장 식사△이사장 치사△총동창회장 축사△명예박사 학위수여△공로상 수여△학위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식자의 모범을 보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조문수(화공79) (주)한국카본 회장은 동국대 발전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명예공학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고 최종선 동문을 대신해 이강현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교 관계자는 “고인은 사망했지만 몸이 편치 않은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박사학위를 수

여받는 점에 대해 유족분들에게 작은 위로를 드리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8월26일 열린 와이즈캠퍼스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431명, 석사 73명, 박사 13명 등 총 517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서울캠과 와이즈캠 가을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을 축하하고 총동창회 입회를 환영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자양분은 새로운 시도와 시행착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제13회 영남지역 동문 골프대회

모교(총장 윤성이)가 주최하고, 사회과학대학원 총동창회(회장 김석만)가 주관한 ‘제13회 동국대학교 총장배 영남지역 동문 골프대회’가 10월26일 경남 양산 동부산CC에서 열렸다.

직할경주동창회, 부산동창회, 경남동

창회, 대구경북동창회, 사회과학대학원 총동창회, 행정대학원 울산동창회 등 영남지역 단위 동창회 동문 120명이 참가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임선기 사무총장은 영남지역 동문들과 함께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업 걱정 없는 대학’ 취업박람회 열려

309개 국내 대기업, 외국계, 공기업 등 우수기업 참가



모교(총장 윤성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취업박람회를 대면으로 열었다.

9월1일부터 7일까지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과 캠퍼스 일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는 개강과 함께 취업상담을 하려는 재학생들로 활기가 가득했다.

취업상담 관련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이 1대 1로 상담할 수 있는 채용상담

관 △취업 전반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 취업상담 부스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상담 △대 1 자기소개서 클리닉 뿐 아니라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검사 △면접에 알맞은 커뮤

니케이션 방법을 알려주는 면접 이미지 메이킹 △면접 스타일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했다.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람회 기간 동안 △단과대학별 명사 강연 △단과대학별 체육대회 △선후배 간담회 △연꽃제도 함께 진행됐다.

경주, ‘WISE 캠퍼스’ 명칭 선포식



WISE 캠퍼스는 9월22일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새롭게 바뀐 ‘WISE 캠퍼스 명칭 선포식’을 가졌다.

1978년 동국대 경주대학으로 개교해, 1987년 경주캠퍼스로 개칭한 후 혁신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아 와이즈 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선포식을 갖

게 되었다. WISE 명칭의 의미는 Wise Innovation, Smart Evolution으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혜롭게(Wise) 혁신하고(Innovation), 스마트하게(Smart) 융합하고 진화해(Evolution) 발전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2022 백상 대동제, 렛츠끼릿



백상 대동제가 9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열려 성황리에 끝났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입학했던 코로나 학번(20, 21, 22학번) 학생들은 첫 대학 축제를 큰 기대감으로 즐겼다.

캠퍼스 곳곳에는 학과, 단과대별 주점이 열렸고 팔정도에서는 각종 단체 부스(만화열, 카운슬링, 동국문화회, 다락, 길라잡이, 왕중왕 등)가 운영됐다.

29일에는 ITZY, HYNN, YOUNHA, 30일에는 ZICO, 10CM, Ailee, Dvwn 등 아티스트 공연이 펼쳐져 열기를 더했다.

동Go동樂 임석대동제

WISE캠퍼스는 9월27일부터 3일간 교내 일원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를 개최했다.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 네트워크 구축 및 재학생들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경주시, 경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원자력환경관리공단,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유튜브 불교대학 비유디

10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 ▶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 ▶ 경전공부 - 육조단경, 금강경 등 / 자매 채널 비유디 - 특강
-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월 2,990원/교재 무료 제공)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dongguk
UNIVERSITY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90학번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성료

“재회의 기쁨, 동기회로 이어가자”



90학번 입학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가 10월15일(토) 모교 중강당에서 열렸다. 90학번은 2020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를 준비하다가 코로나로 중단한 후 금년 7월 논의를 재개해 32년만에 개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행사는 ▲등록 및 사전행사(팔정도) ▲환영행사(중강당) ▲사진촬영(명진관) ▲만찬(중앙도서관 옥상정원) 순으로 진행됐다. 문희승(역사교육90), 박혜경(연영90)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환영행사는 동국동문합창단의 합창으로 문을 열었다.

통상 행사 마지막에 부르는 교가를 첫 순서에 들려주며 90학번들의 추억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모교의 발전상을 담은 홍보영상은 세월의 흐름 속에 모교의 변화된 모습을 실감케 했다.

심한경(법학90)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의 홈커밍데이 행사는 90학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걸음이다”면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만남을 예고했다.

윤성이 총장은 치사를 통해 “후배들이 등록금 걱정 없

고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고자 중단, 법인, 학교, 총동창회가 일심동행하고 있다”며 모교의 변화와 발전에 응원을 부탁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차세대 주역으로서 아름다운 동행으로 빛나는 동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달라”며 90학번들의 재회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참여를 당부했다.

32년만에 돌아온 90학번들은 연극학부와 백상응원단 후배들의 환영공연에 박찬 감동을 느끼며 115년만에 바뀐 학위복을 입고 학창시절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루프탑 가든파티로 이어진 2부 만찬행사는 중앙도서관 옥상정원에서 진행됐다. 남산 야경에 어울리는 재즈 공연과 함께 학창시절 추억담을 나누며 재회의 기쁨을 동기회로 이어가자고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내년에는 91학번, 92학번, 93학번 홈커밍데이

2009년 79학번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진 홈커밍데이 행사는 학번 동기회를 결성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먼저 행사를 치른 79~89학번 동기회도 홈커밍데이 행사를 계기로 결성되어 활성화됐다. 79~89학번 동기회는 90학번 후배들의 재회 행사에 회장단이 참석해 협찬금과 협찬품을 전달하며 축하했다.

내년에는 코로나로 미뤄졌던 91학번과 92학번 홈커밍데이 행사를 차례로 진행하고 93학번 입학30주년에 맞춰 홈커밍데이 행사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매년 4월 마지막주 토요일 개최했던 리멤버 등



인터뷰

80년대 학번 넘어 90년대 학번 첫 관문 열어

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학창시절에는 과대표 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97년 졸업 후 약25년동안 법학과 90학번 동기회 회장을 맡아 오다가 첫 준비모임에 법학과 동기들이 많이 참석해 본의 아니게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심한경 (법학90)
홈커밍데이 준비위원장

현재 하시는 일은?

산업의 기초 소재인 구리와 희소금속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銅제련소 LS-Nikko동제련(주) 법무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추억은?

96년 봄, 대학야구 춘계리그에서 당시 대학 최강이라는 한양대를 꺾고 우승해 동대문 야구에서부터 학교까지 함께 응원가를 부르며 행진해 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행사 후 90학번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러 사정으로 다른 학번 선배님들의 행사 때에 비해 많은 동기들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행사에 참석한 동기들의 얼굴에서 만남의 연속성에 대한 공감과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행사를 같이 준비했던 구해관(90학번 핵심 관계자)이 다시 모여 90학번 모임을 정례화하고 더 많은 동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90학번 모여라 (<https://band.us/@dgu90>)

산대회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치른 학번들끼리 교류하며 친목을 강화하는 행사로 2015년 시작되어 2019년까지 이어졌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중단된 상태다.

내년에는 84학번 주관으로 리멤버 등산대회도 다시 추진해 복원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계태사 고려불화 학술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0 | Tel. 02-730-2928

자체개발한
순수 고농도이산화염소가스제조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살균 및 악취제거
전문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데오테크 · (주)데오시스

친환경 악취제거 전문기업 | 국립 축산 과학원 공동개발

대표이사
서 승 훈
(정치외교학과 73入)

010 . 7739 . 7928 suhubin@naver.com

(주)데오테크경기
1561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38번길 14
Tel. 031) 985-0383 / Fax. 031) 494-0383

(주)데오시스
1543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05동 309호
Tel. 031) 362-4884

www.deotech.co.kr

YUMIN (주)유민에스티

세계 최초
필름형 액체 감지 센서
연구개발 · 제조 · 판매 · 시공 · A/S

대표이사
김 동 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4번길 35-29 경기빌딩 2~3층
T. 031-429-6873 F. 031-429-6874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신일정공

회장 **이 수 복** (경영학과 197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16 (목내동) | Tel. 031) 491-3601

(주)백룡산업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표이사
鄭 萬 和
(화학과 80卒)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 95번길 28 (박곡리 771-1)
Tel. 031) 334-3047 Fax. 031) 333-4840 E-mail. jmh4840@naver.com

국내산 6년근 홍삼액
100%
Since 1969



100% 국내산 품질 좋은 인삼만 사용해 직접 만든 홍삼을,
50시간 저온으로 우려낸 진한 홍삼액입니다.

명물장수기업 Time-honored Business 유엔아이 YOUNI CORPORATION NAVER 백년지기우리홍삼 검색

(주)동진기업 회장 송석환 (농림경제학과64) 동문

기업인과 교육인의 삶 ... 합성수지 용기로 정상의 길

송석환(78. 농림경제학과 64학번) (주)동진기업 대표이사 회장은 원로 선배들도 있고, 특별히 말할 것도 없다며 인터뷰를 한사코 고사했다. 25대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하며 장학기금 및 운영기금 등을 기부하며 모교와 총동창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것 뿐아니라 10월 31일 총동창회를 통해 또다시 모교에 1억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공로를 보아서도 인터뷰를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뢰와 인내가 경영철학

힘들게 일정을 잡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동진기업 16층 회장실을 찾자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하는 원로동문 김규영 회장(경제과 58학번)이 방문해 계셨다. 송 회장은 “김규영 선배님과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꼭 김 선배님 댁에서 묵는다”고 소개했다. 잘 생긴 건강체에 유독 귀가 커보인다. 이 점을 지적했더니 “귀가 크기 때문에 듣기를 잘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겸양이 몸에 밴 모습이다. 한동안 덕담이 오간 끝에 회사 발전의 동력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았다.

“지금 불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회사만큼은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은 내 좌우명인 ‘신뢰’와 ‘인내’에 있다고 봅니다.”

(주)동진기업은 경기 안성과 충북 진천, 광주광역시에 플라스틱 제조공장을 갖고 있다.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등 4개국 5개의 글로벌 계열사를 두고 있다. 지난 5월 진천공장 화재 사고로 큰 재정적 손실을 보았지만, 차질없이 복구공사를 진행해 공장 가동률이 상당부분 회복됐다. 내년 5월이면 정상 가동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화재가 났을 때 나는 미국 출장중에 있었지요. 돌아와보니 공장이 소실되었습니다. 재정적 손실이야 어쩔 수 없지만 회사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화재사고 이전보다 더 진화된 공장을 짓자고 나서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가족같은 회사’라는 결집된 힘이 위기를 극복한 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동진기업은 동종 업계에서 사원 복지와 급여조건이 가장 좋은 회사로 정평이 나있다. 회사 창업 이후 47년 동안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이유다. 이런 이미지는 거래선으로도 그대로 이행된다. 송 회장의 경영철학대로 ‘신뢰’의 정신을 이어가다 보니 지금까지 거래선이 끊기거나 떠나간 사람이 없다.

만석군 家代의 후손

회사원을 가족처럼, 거래선을 형제처럼 만드는 정신은 가풍의 영향이다. 그는 ‘양반의 고장’ 경북 상주의 만석군의 후손이다. 일제강점기 아버지 대의 집안 형제 8명이 모두 대학생일 정도로 깨어있는 집안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다.

아버지 송주식 선생은 일본 중앙대 출신으로 해방 후 농림부에 근무했다. 죽산 조봉암이 농림장관으로 근무할 때다. 아버지는 일제 시기와 해방공간에서 당시 많은 지식인이 걸었던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다. 그는 사회주의 신념 때문에 해방 직후 그 많은 농토를 소작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했다.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하던 때 탄압을 받다가 6.25가 터지자 월북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아버지의 생사를 모르고 있다.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아버지와 헤어진 것은 7세 때지요. 그후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정치하지 마라’, ‘원

수지지 마라’, ‘나쁜 것 보지 말며, 나쁜 말 전하지도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장래를 기대했던 아버지에 대한 회한 때문이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송돈호 선생은 고향 인근의 옥동서원에서 후생을 지도하는 한학자였다. 송 회장 가족은 6.25전쟁 중 할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다녔는데, 소작인들이 가족들을 몰래 숨겨주고, 쌀과 반찬을 가져다줘 연명했다. 아버지의 재산 분배가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이런 따뜻한 손길로 이어진 것이다. 뼈대있는 집안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나쁜 것 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잊었다고 한다. 그것이 지체있는 가대의 자존심이자 덕성이라고 했다. 경주에 최부자가 있다면, 상주에 송부자가 있다고 널리 전해졌다. 상주 송 회장 고택은 지금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돼있다.



송 회장이 모교 농림경제학과를 지망한 것은 할아버지의 “정치하지 마라”는 교육과, 피폐한 농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조합장을 하자는 소박한 꿈에서 비롯됐다. 또 연좌제에 묶여 현실적으로 큰 꿈을 이루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1968년 아시아자동차(현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입사하면서 진로가 바뀌었다.

자재과에 근무하면서 회사 납품하는 제품을 살펴다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팔면 엄청난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실용적인 플라스틱 용기 혁명이 일어나던 시기라 제품만 만들면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1975년 회사 퇴사하면서 서울 도선동에 동진플라스틱을 차렸다. 남녀 직공 6명이 일하고, 그 역시 노동자·외무사원·사장 등 1인 3역을 했다. 이때 “야근시간에 직공들과 함께 양푼에 밥과 반찬을 섞어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맛이 최고였다”고 회고했다.

회사를 일군 힘

오늘의 동진기업을 이루기까지 기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77년과 80년 초 연이자 72%의 사채를 쓴 적이 있습니다. 살인적인 이율이지요. IMF관리체제 때는 월 이자

24%의 사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원료값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 힘들었지요. 부도가 날 위기에서도 사채 이자와 원금을 제 날짜에 꼭 갚았어요. 사채업자들은 합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리스크를 안고 사업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돈 갚을 능력과 인품, 회사의 비전을 보고 돈을 줍니다.”

동진기업은 첨단 기능의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제조하는 국내 굴지의 회사다. 산업용은 물론 가정용 플라스틱 식품용기를 제조한다. 주요 거래처는 CJ, 농심, 롯데, 해태제과, 풀무원 등 10대 식품회사다. 그러나 거래선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더불어 살아가자는 신념 때문이다. 특혜를 받는다는 인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독점 거래를 지양(止揚)한다.

송 회장은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적 제품을 연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을 생각하며, 보다 나은 가치 창출의 플라스틱 산업의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미래 구상을 밝혔다.

나누는 정신, 배려의 품격

송 회장은 모교 로터스관 건립기금, 총동창회관 건립기금, 장학기금 등 현재까지 5억여 원을 후원했다. 이런 공로로 2020년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 대상을 받았고, 지난해엔 모교 발전을 위한 공로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송 회장은 “모교가 최근 대학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데 자부심을 갖는다”면서도 편중된 이사진 구성 등으로 인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송 회장은 고교 모교인 김천고 송설당교육재단 이사장을 10여년간 맡기도 했다. 송 회장이 이사장 취임하기 전엔 전국 2300개 고교 중 1300위에 머물렀지만, 이사장 재직 중 29위로 끌어올렸다. 경북 지역에선 1위. 서울대 진학도 매년 20여명에 이른다. 그는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교실, 기숙사 신개축 및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대대적인 장학사업을 벌였다.

송 회장은 총동창회에 대해 “회장이 내실있게 살림을 꾸려간다고 평가하면서 “나는 원용선·이연택 회장 시절 수석부회장을 8년 가까이, 그리고 25대 회장직을 수행했다. 총동창회는 이해집단이 아니다. 겸손과 배려, 봉사의 정신에서 벗어나선 안된다. 한때 애먹은 사람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해원(解冤)을 한다면 더욱 동창회가 화합하고 단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있었던 총동창회 갈등기의 아쉬움의 토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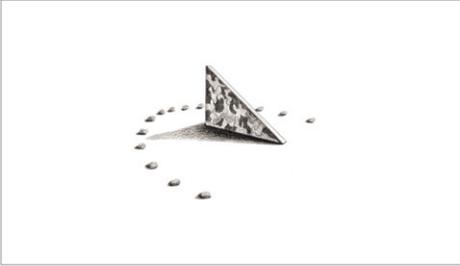
부인 최영옥 여사와의 사이에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승혁씨와 차남 승민씨가 국내 4개 계열사를 맡고, 미국과 캐나다 법인은 장남과 3남 승우씨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송 회장은 아들들에게 특별한 교육관 대신 “겸손만이 성공의 길”이라고 가르쳐왔다고 전한다.

이계홍(국문6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 인터뷰 全文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지유 (99학번)
어둠 안에 (78.8 x 109)



문명기 (97학번)
설치를 위한 드로잉 (21 x 29)



오병욱 (교직원)
빠른 풍경 - 가을 (41 x 53)



오원배 (72학번, 명예교수)
무제 (33 x 52)



이수예 (93학번, 교직원)
지금 여기블 3 (48.2 x 80.1)



구철회 (91학번)
그리움 - 유채밭 (53 x 45.5)



김강원 (09학번)
Green Fruit (55 x 46)



김산영 (00학번)
팬찮아, 이거 백원밖에 안해 (72.3 x 53)



김선우 (08학번)
Secret admirer (72.7 x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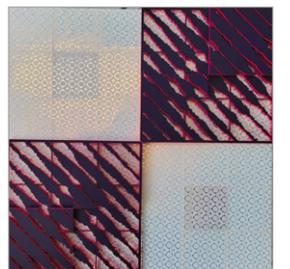
'2022 동악 아트 가을 물들인 동국 미술 축제 ...

총동창회와 모교가 공동주최한 '2022 동악 아트 페스티벌' 오픈식이 10월20일 모교 문화관 갤러리동국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후배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된 행사에 활동이 왕성한 실력 있는 모교출신 미술작가와 전·현직 교원 등 27명이 56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90년대 학번이 11명, 2000년대 학번이 9명으로 30~40대 젊은 현대미술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를 주관한 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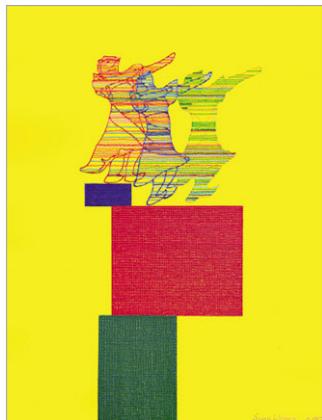
Total Gallery 대표 박천희(미술85) 동문 화가들이 많다는 것을 일반 동문들에게 알리고 수익금으로 후배 장학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오픈식 축사를 통



위성웅 (86학번)
하루를 갖다 (60 x 60)



이상록 (74학번)
그 날이 오면 (60 x 60)



권성원 (94학번)
Unstable balance 21 - Dance3 (52 x 32)



박미진 (97학번)
사라지는 풍경에 대한 채집 (33 x 22)



박병일 (97학번)
괴석과 캐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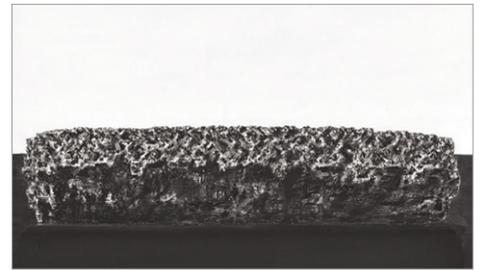
페스티벌' 전시회



작품에 담긴 모교 사랑! 후배 사랑!

은 “미술계에서 활동하는 실력 있는 동문
알리고 싶었다.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알리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
해 “활동력 있는 다양한 분야의 동문들을

발굴하고 동문사회에 소개하는 일은 총동창회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가을
정취를 느끼며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소중한 작품을 내어준 동문들께 감사
드린다”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품격 있는 동국인의 새로운 축제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2022 동약 아트 페스티벌’은 10월21일부터 23일까
지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돼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인 (83학번)
검은, 어떤 것 1 (40 x 80)



이주원(교직원)
길에서 조우하다 _ 별 (50 x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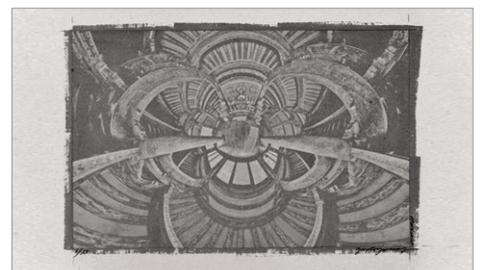
장일권 (85학번)
변화 (40.5 x 60.2)



임장환 (07학번)
Blue wall (50 x 50)



정두화 (92학번)
Sound (지름 60)



주도양 (94학번, 교직원)
Emptiness VI / 예산 수덕사 (45 x 64)



96학번)
(72.7 x 50)



박새해 (08학번)
우리가 마주했을 때 (53 x 45.5)



조정은 (07학번)
별 헤는 밤 (72.7 x 53)



지희킴 (김지희, 02학번)
NO.1 (32 x 45)



송원석 (91학번)
병과 매화가지 (76 x 63)



이지연 (95학번)
Still - life 2 (2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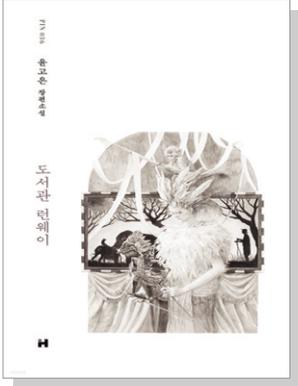
최인엽 (05학번)
지층이 변동하는 시간 (53 x 45.5)



파랑 (전현주, 02학번)
Weird world (53 x 45.5)

제35회 동국문학상 수상작 「도서관 런웨이」

작품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주목받는 소설가 윤고은



본명은 고은주인 윤고은 동문은 문예창작학과(99/04)를 졸업했으며 잡지 에디터나 라디오 작가를 지망하다 대학 2학년 때 소설을 쓰기 시작해 대학 4학년이던 2003년 『피어싱』으로 제2회 대산대 학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이후 동문의 선배 소설가와 접치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성을 딴 필명 '윤고은'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해 2008년 장편 『무중력증후군』으로 제13회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3년 장편소설 『밤의 여행자들』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영국 프로파일 북스 출판그룹 소속 임프린트인 서펀츠 테일에서 출간되어 2021년 7월 대거상(The CWA Dagger)을 아시아 작가 최초로 받았다.

대거상은 영국 추리작가협회가 1955년에 제정한 영어권의 대표적인 추리문학상 중 하나로 해마다 픽션과 논픽션 대상 총 11개 부문을 시상한다.

『밤의 여행자들』이 수상한 번역추리소설 부문은 영어로 번역된 외국 추리문학 중 뛰어난 작품을 기리는 상으로 2019년까지 인터내셔널 대거상으로 불렸다.

2019년부터는 EBS 라디오 책 교양 프로그램 '윤고은

의 EBS 북카페'(매일 12~14시)를 진행하며 방송국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에 달하는 자신의 일상을 담은 첫 에세이 '빈틈의 온기'를 냈다.

그리고 '안심 결혼보험 약관집'이라는 색다른 소재를 다룬 장편소설 '도서관 런웨이'(현대문학)를 펴냈다.

혼자인 채 함께인 동국문인들의 길고 근사한 테이블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라디오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낮에는 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밤이 되면 소설을 쓰는 것이 일상의 리듬이 된지 3년이 넘었거든요. 소설과 라디오는 때로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설은 혼자 쓰는 세계입니다. 누구도 초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 '나 혼자'여서 가능한 매혹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라디오는 굳이 혼자일 이유가 없는 세계입니다. 소설을 쓰는 책상 앞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가 많지만, 온에어 표시등 앞에서 저는 계속 말을 합니다.

혼자여서 매혹적인 세계와 굳이 혼자일 필요가 없는 세계 사이를 지하철로 오가면서 거의 매일 동대입구역과 충무로역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지하철역 에피소드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 두 개의 지하철역은 각별합니다. 모교로 이어지는 길목이니까요. 고철 덩어리 안의 승객 하나로 그

일대를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여전히 동국대학교는 제게 구심점입니다.

동국문학의 너그러운 품 안에서 저는 소설에 대한 호기심을 처음 품게 되었고, 그 거대한 나무 그늘에서 신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한동안 쓰지 못했던 시기에 저를 다시 소설의 세계로 불러준 힘도 동문이었지요. 쓰고 싶으나 쓰지 못했던 제 마음의 안부를 물어봐 주신 선생님들, 함께 쓰자고 모인 선배배들. 수상 소식을 들은 날에도 제가 탄 열차는 동대입구역과 충무로역을 통과했습니다. 학교 앞 소박한 식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정겨운 풍경이 떠올랐지요.

그 테이블을 아주 길게 늘여서 지하철 열 칸만큼 확장하면 문학과 사랑에 빠진 동국문학인 모두가 앉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스무 칸, 서른 칸이 넘는 긴 열차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달렸고 지금도 달리고 있고 앞으로도 흘러갈 그 거대한 흐름에 초대된 기분이 근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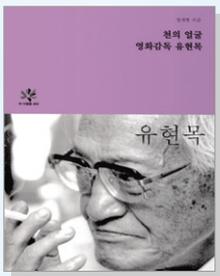
귀한 상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국의 빛, 이 사람을 보라 ... 동국을 빛낸 인물 평전 시리즈 속간

천의 얼굴, 영화감독 유현목

- 정재형(연영80)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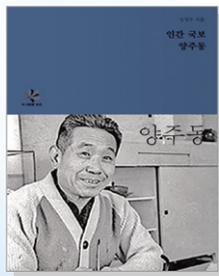
전위적 현대미학을 이 땅에 실현한 한국영화 미학의 개척자, 유현목은 천의 얼굴을 지닌 사나이였다. 영화를 하였으나 영화 밖의 세계와 교유했고, 마침내 세상을 얻었다.

스스로 굴복보다는 저항을, 안일보다는 고뇌를 선택했던 영화감독 유현목. 그래서 우리는 "유현목은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가는 제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영화 예술은 사람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인간 국보 양주동

- 장영우(국문77)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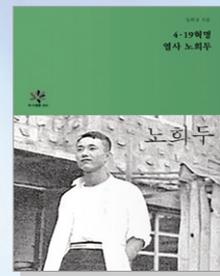


조선고가연구, 여요전주 등 우리 고대가요의 어휘와 형식적 틀질을 최초로 정리한, 한국 문학계의 보물같은 존재, 양주동 선생은 한번 보고 들으면 잊지 않는 천부적 재능을 불굴의 노력으로 더욱 빛낸 천재다.

엄청난 독서와 치밀한 분석력으로 고가古歌 연구를 단기간에 완성한 학구적 태도,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고 배움이 필요한 곳에서 열정을 다해 가르치는 스승의 자세를 갖춘 선생이야말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사표師表다.

4.19혁명 열사 노희두

- 정희성(국문79) 저



4월19일 동국대 시위대는 해일처럼 움직였다. 그 선두에 스물두 살 법학도 노희두 열사가 있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3학년 노희두. 고향 부모님 등 집안 어른들이 거는 기대를 모르지 않았지만 1960년 전후 한 국사회가 청년학도에게 요구하는 책무 또한 외면하지 않았다.

4월19일 오후, 시위대를 향해 경찰의 조준사격이 시작됐다. 총소리가 울리자 선두에 있던 학생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다. 민주혁명 제단에 첫 피를 뿌린 노희두 열사였다.

- 1. 천재들의 스승, 석전 박한영
- 5. 한국시의 큰별, 서정주
- 9. 인간 국보 양주동

- 2.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 6. 뇌를 마음 우리가 안다, 조지훈
- 10. 4.19 혁명 열사 노희두

- 3. 나비아 청산가자, 김법린
- 7. 연꽃으로 피어난 참스승, 최혜정

- 4. 땅에서 일어난 하늘, 백성욱
- 8. 천의 얼굴, 영화감독 유현목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구입안내 : 각 1권 12,000원 / 세트 10권 구입시 118,000원 (보관용 케이스 + 배송비 포함)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149661 (예금주 : 주식회사 정진코퍼레이션)

주문전화 : 02.2264.4714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최철호 소장의 한양도성 테마여행 가이드



600여 년의 역사를 품은 한양도성

한양도성(都城)에서는 서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볼 수 있다. 한양도성은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의 자랑이자 서울을 재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다. 도성 안 물길과 도성 밖 물길은 한강으로 연결되어 서울을 지킨다. 한양도성을 한 바퀴 도는 '순성(巡城)'은 조선의 놀이문화이자 왕이 백성을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며 믿음의 길이었다.

길이 18.627km의 성곽은 600여 년 전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선이였다. 한양도성은 4개의 산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어서 만들었다. 도성 안 4개의 산인 내사산(內四山), 즉 백악산, 낙타산, 목멱산, 인왕산이 이어져 서울의 울타리가 되었다. 성벽과 성벽 사이에 4개의 성문을 만들고, 사람들을 오가게 했다.

원래 서울은 이렇게 도성 밖 성저십리 삼각산에서 한강까지였다. 성문이 닫히면 성벽이요, 성문이 열리면 사방팔방으로 길이 연결되었다. 성문과 연결된 옛길은 팔도로 가는 교통의 통로가 되었고, 한강과 연결되는 물길은 뱃길이 되었다. 높지 않은 산들이 연결되어 성곽으로 둘러싸인 서울은 하나의 거대한 산이다. 도성 안 한복판에 종묘와 사직단이 있고,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은 산기슭과 산줄기에 모여 있다. 도성 안으로 천과 강이 흐른다. 도성을 동서로 나누며 흐르는 10.84km 청계천물은 종랑천에 모여 한강으로 흘러간다.

“짜가지가 없다?” 이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익숙한 이 말은 600여 년 전부터 쓰던 우리말이다. ‘짜가지’의 4가지가 서울 사대문 현판에 걸려 있었다. 조선은 오상(五常)의 기본 이념을 성문의 현판에 새겨 두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했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는 사대문(흥인문, 돈의문, 승례문, 소지문)에, 신(信)은 도성 한가운데 자리잡은 보신각(普信閣)에 넣어 항상 가운데 바르게 위치해 밝은 빛을 내라는 광명지심(光名之心)의 의미를 담았다.

인(仁)은 측은지심(心)으로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겨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다.

의(義)는 수오지심(心)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예(禮)는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다.

그리고 지(智)는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다. 이 4가지가 없는 사람을 사가지 없는 놈”이라고 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 “짜가지 없는 놈”으로 머릿속에 박히게 되었다.

성문 밖에서 줄지어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동·서·남·북에 있는 사대문 현판 글씨를 읽어야 성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백성들은 흥인문의 ‘인(仁)’, 돈의문의 ‘의(義)’, 승례문의 ‘예(禮)’, 소지문의 ‘지(智)’를 읽으며 성문으로 들어갔다. 짧은 시간이지만 백성들에게 평생교육을 시킨 셈이다. 사대문 사이에는 4개의 사소문(혜화문·소의문·광희문·창의문)을 두었는데 돈의문과 소의문은 없어졌고, 광희문과 혜화문은 15m씩 옮겨져 제자리를 벗어났다.

한양도성은 일제강점기와 도시 근대화 속에 서 18.627km 중 30% 정도가 소실되었다. 오늘날 13km 정도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화와 인구 집중으로 성곽의 돌은 빌딩 숲의 담벼락으로, 집과 집을 구분하는 담으로, 학교 간 경계로, 교회와 성당을 구분 짓는 담으로 이용되었다. 도시화로 성벽이 더 험락이 전에 서둘러 복원되어야 한다.

600여 년 전 서울의 인구는 20여만 명이였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한양도성을 쌓지 않았다. 한반도 전역에 살고 있던 중인과 농민 197,000여 명이 서울까지 와서 쌓았다.

한양도성 18.627km를 천자문 천(天)에서 조(用)까지 97구간으로 나누어서 쌓았는데 약 180m씩 책임자를 두고 자신이 떠난 고향과 가까운 구간에서 작업하게 했다. 농번기를 피해 추운 농한기 49일과 추수가 끝난 농한기 49일 동안 계획적이고도 빠른 시간에 쌓다 보니 다친 사람과 고된 노역으로 숨진 사람이 많았다.

한양도성 성벽 성돌 하나하나에 그들의 땀과 피 그리고 눈물이 담겨 있다. 도성 안과 밖의 삶을 지키는 울타리였던 한양도성은 그냥 지나치면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걸으면서 살펴보면 한양도성 97개 구간에서 279여

개의 글자가 새겨진 성곽의 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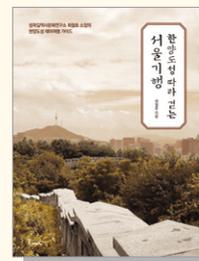
이 각자성석(刻字城石)은 오래된 도시의 기록이자 전통이 투영된 도시의 증거물이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공사 구간 공사 시기, 공사 지역 및 공사 책임자와 공사 감독관까지 요즘말로 ‘공사실명제’를 시행했다.

한양도성은 규모도 크고 성곽 둘레도 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성곽과 관련된 유산에는 성채와 성곽, 성벽과 요새가 많다. 세계적으로 도시를 둘러싼 성곽은 있지만 온전히 남아 있는 곳은 한양도성이 유일하다.

한양도성은 청계천 광장에서 10여 분이면 만날 수 있다. 519년 조선의 역사를 품은 한양도성을 거닐며 가까운 사람과 밀린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

(출처 = 한양도성 따라 걷는 서울기행 머리말)

한양도성 따라 걷는 서울기행



성곽길역사문화연구소 최철호(산공86) 소장이 쓴 테마여행 가이드인 ‘한양도성 따라 걷는 서울기행’이 8월31일 발간됐다. 600여 년의 역사를 품은 한양도성 안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저자는 한양도성을 따라 가볼 수 있는 서울의 역사 여행지를 △도성을 품은 내사산 여행 △사소문 따라 서울 동네 한 바퀴 △청계천에서 한강까지 물길 여행 △조선 왕조 역사 따라 추모의 길 △위인의 흔적 찾는 도심 속으로 △목멱산 따라 용산여행 등 6가지 테마로 나누어 소개한다. 한양도성 역사기행 가이드로도 활동 중인 저자의 생동감 있는 설명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100여 점의 사진이 함께 실려 있다. (아임스토리 / 1만6천원)



좋은 들에 좋은 상품! 굿드래!

부여10품

수박 | 밤 | 토마토 | 멜론 | 양송이버섯
딸기 | 표고버섯 | 왕대추 | 오이 | 포도



임명 · 승진 · 선출

경남연구원장 임명



송부용(농경78) 동문이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제16대 경남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송 동문은 경남연구원(이전 경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과 연구기획실장, 경남도 경제특보 및 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장,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 경남연구원장 직무대행 및 연구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쌍용 C&E 부사장



이병주(행정78) 동문이 쌍용C&E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동문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쌍용C&E로 입사해 인사팀장, 상무보, 상무 등을 거쳐 2014년 쌍용기초소재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부터는 쌍용C&E 전무로서 인사총무, 에너지사업, SCM, 지원부문을 담당해왔다.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조충미(교육81) 동문이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동문은 2017년부터 강서구 소재 허준마을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봉사하면서 평생교육사 및 미술심리상담사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사단법인 한국서화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제39회 대한민국서화예술대전'에서 캘리그라피 부문 특선과 입선으로 입상하는 경사가 있었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설세훈(교육87) 동문이 8월12일자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임명됐다. 설 동문은 교육학과와 미시간주립대 교육학 석사를 졸업하고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교육부 운영지원과장, 목포대학교 사무국장,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현장과 정책분야를 두루 거친 전문가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출범한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국민의힘 4선 김현기(대학원 행정94)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장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회의원 입법보좌관으로 일했다. 시의회에는 7대에 입성해 8·9대까지 일했으며 6·1 지방선거 당선돼 4선에 성공했다.

수 상

제9회 석정시문학상



신석정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9회 석정시문학상에 문효치(국문62) 시인이 선정됐다. 석정시문학상은 신석정 시인의 고결한 인품과 시 정신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되어 대한민국 문인으로 문학적 성과가 지대하며 발표된 작품에 대한 평가가 높은 시인을 종합적으로 선정한다.

문 시인의 문학적 성취와 사상이 석정의 문학적 성취나 사상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이인정(상학65)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이 10월18일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제21회 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모교 산악부 출신으로 1980년 마나슬루 원정대 대장으로 한국 최초의 등정 성공을 이끌었으며, 국립산악박물관과 국립등산학교 설립에 기여했다. 현재 아시아산악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12회 반야학술상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 시상하는 제12회 반야학술상에 김호성(인철78)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정도불교 성립론',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 '출가 정신의 전개' 등 다수의 저서와 정도불교 및 일본불교에 관한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발표해온 불교학계의 중진학자다. 뿐만 아니라 불교교육과 불교학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42회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



권은경(국악00) 동문이 7월 23,24일 양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제42회 전국고수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고수의 길을 걸은 지 22년째로 2002년 전국고수대회에 처음 도전장을 내밀어 20년만에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다.

2022 대한민국 뉴리더대상



차대식(사과대97) 대구 북구의회 의장이 8월23일 '2022 대한민국 뉴리더대상'을 수상했다. 차 의장이 받은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경찰청 인사

경무관 전보

8월4일자로 발표한 경무관 전보인사에서 보임된 동문현황은 다음과 같다.

- △ 강원청 공공안전부장 = 김소년(경행84)
- △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 김주원(경행84)
- △ 서울청 기동본부장(6.30) = 엄성규(경행90)
- △ 광주청 수사부장 = 임병숙(역사교육84)
- △ 전남청 수사부장 = 최보현(법학92)
- △ 경찰수사연수원장 = 윤명성(대학원 범죄학 박사)
- △ 대전청 자치경찰부장 = 이재영(대학원 경찰학 박사)
-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6.30) = 김광식(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 인천청 수사부장 = 곽순기(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 경찰대학 교수부장 = 이준형(대학원 경찰학 박사)
- △ 광주청 자치경찰부장 = 박우현(대학원 경찰학 박사)
- △ 서울청 경무부장 = 김숙진(행대원 석사)

총경급 전보

8월16일자로 단행한 전국 총경급 하반기 전보인사에서 보임된 동문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충북 옥천경찰서장 = 박봉규(경행83)
- △ 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 최성영(경행83)
- △ 충남 홍성경찰서장 = 구자면(경행84)
-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 박미영(경행84)
- △ 경기남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김신조(경행85)
- △ 충북 괴산경찰서장 = 손휘택(경행85)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장 = 이기호(경행85)
- △ 인천광역시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임실기(경행85)
- △ 세종 북부경찰서장 = 황석현(경행85)
-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무기획과장 = 장원석(경행86)
- △ 인천광역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 고영재(경행87)
-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장 = 김선섭(경행87)
- △ 강원도경찰청 경비과장 = 김택수(경행87)
-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 박웅(경행87)
- △ 경찰청 안보수사과장 = 신성철(경행87)
-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외사과장 = 박현규(경행88)
-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장 = 김태형(경행89)
- △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 여진용(경행89)
- △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기동대장 = 정성일(경행89)
- △ 경상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권용웅(경행90)
- △ 인천광역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 김정란(경행90)
-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 구슬환(경행90)
- △ 경상남도경찰청 경비과장 = 김현환(경행90)
- △ 충청북도경찰청 홍보담당관 = 김경열(경행92)
-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 김완기(경행92)
- △ 경찰청 인사담당관 = 박재현(경행92)
- △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김기현(경행93)
- △ 전라남도경찰청 형사과장 = 김정완(경행93)
- △ 경찰청 정보분석과장 = 김찬수(경행93)
- △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교육 = 박정훈(경행94)
- △ 경남 진주경찰서장 = 이창열(경행94)
- △ 충남 논산경찰서장 = 지지환(경행94)
-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7.21) = 이근안(경행94)
- △ 강원 동해경찰서장 = 이철희(경행95)
-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 박성수(경찰사법대학원 석사)
- △ 전라북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 김홍훈(행대원公安행정학과 석사)
- △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 최종윤(행대원公安행정학과 석사)

본인 또는 주변동문 동정 등 각종 소식을 알려주세요!

E-mail : dongguka@naver.com

문정희 시인, 국립한국문학관장 임명



문정희(국문66) 시인이 10월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5년 10월 5일까지 3년이다. 문 신임 관장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창작활동을 해오며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부 석좌교수(2005년~2017년), 한국시인협회 회장(2014년 ~2016년)과 한국문학번역원 이사(2015년~2016년)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9년 국립한국문학관 법인 출범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 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문정희 시인은 1947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 진명여고 재학 중 백일장을 석권하며 주목을 받았고, 1969년 모교 재학 중 [월간문학]으로 등단했다.

김후곤 동문, 변호사로 새 출발



김후곤(법학84) 前 서울고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과 개업 신고를 마치고 로백스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김 前 고검장은 9월7일 퇴임식에서 “검찰의 가장 좋은 점은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국민의 소중한 사명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검사 27년 삶 끝에는 저를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었다. 평생 스승으로 기억하겠다”며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가 아니라

검찰도처유상수”라고 동료 검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김 前 고검장은 특수수사 실력과 강직한 인품을 두루 갖춰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을 거쳤고, 지난 5월 고검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장을 맡았다.

이강철 동문, 2023 WBC 국가대표 감독



이강철(회계85) 동문이 7월21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선임됐다. 이 동문은 80년대 모교 야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에이스로 프로야구에서도 탄탄대로를 걸었다.

은퇴 후 2017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투수 코치를 역임, 국제 대회 경력을 쌓았고, KIA 투수코치, 넥센, 두산 수석코치에 이어 2019년부터 감독으로 KT를 이끌며, 2021년 KBO 리그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2023 WBC는 내년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며 총 20개국에 참가한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B조에 편성 일본 도쿄에서 1라운드를 치른다.

배우 이정재 동문, 에미상 남우주연상 수상



배우 이정재(99연영) 동문이 9월12일(현지시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제74회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수상은 아시아 국적 배우로 최초기록이다.

이 동문은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후 데뷔 6년 차인 1999년 입학해 석사과정까지 마쳤다. 영화 ‘태양은 없다’ (1999년), ‘하녀’ (2010년), ‘도둑들’ (2012년), ‘신세계’ (2013년), ‘관상’ (2013년), ‘암살’ (2015년), ‘신과 함께-죄와 벌’ (2017년), ‘신과 함께-인과연’ (2018년) 등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천만영화만 4편에 이르는 흥행과 연기의 보증수표가 됐다. 또 영화 ‘헌트’ (2022년) 감독으로도 데뷔, 칸영화제에 초청돼 긴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신 간

장편소설 ‘고독한 행군’



소설가 이계홍(국문65) 동문이 역사 대하소설 ‘깃발’ 5권에 이어 장편소설 ‘고독한 행군’ 4권을 출간했다. 격동기 해방 공간의 이념에 희생된 젊은 장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소설은 <월간문학>에 34회 연재했던 작품이다. 작품 연재가 마지막회에서 지면 사정으로 아쉽게 미완으로 끝나 인터넷 매체 <프레스리안>에 36회로 확대 재수록 연재했던 소설이다.

(종합출판범우 / 1만5천원)

시집 ‘오늘은 좀 추운 사랑도 좋아’



시인 문정희(국문66) 동문이 열다섯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작가의 사랑’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시집은 시력 50년에 달하는 문정희 시인의 기념비와도 같다.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기념비일 때 기념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자 영원한 기념을 가능케 하는 예술품이 된다.

(민음사 / 1만2천원)

동국시집 49호 ... 네 목소리가 있다



2022년 동국문학인회 동문들의 시집 ‘네 목소리가 있다’가 출간됐다. 1948년 창간해 6.25전쟁 중에도 끊이지 않고 발간해 어느새 49호를 맞았다. 동국문학이 우리나라 문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문집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것이다.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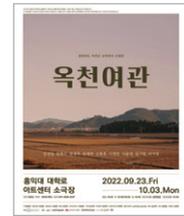
공연

신생 백상컴퍼니 ‘꽃에 빌린 말’



동국대 출신 구성원들로 이뤄진 신생 공연 제작사인 백상 컴퍼니가 첫 연극 ‘꽃에 빌린 말’로 관객들을 만났다. 꽃을 매개로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대화를 담은 창작 공연은 9월2일~11일 서울 흥대 앞 산울림 소극장에서 열렸다. 박문영 연출이 참여한 이번 공연에는 동국대 출신 연극배우 조창희, 한민을 비롯해 전유찬, 정재용, 류제승, 심진혁 등이 출연해 탄탄한 연기력과 호흡을 선보였다.

조준희 교수가 연출한 ‘옥천여관’



모교 연극학부 조준희 교수가 연출한 연극 ‘옥천여관’이 9월 23일~10월3일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렸다. 연극 ‘옥천여관’은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만평, 혜자 부부와 삼 남매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냈다. 특히 연출 조준희 교수를 포함해 연극 <옥천여관>의 작가, 배우, 스태프들이 동국대 연극학부, 영상대학원,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로 구성돼 동국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창작뮤지컬 ‘콰르텟’



모교 출신 제작진이 대거 참여한 창작뮤지컬 ‘콰르텟’이 9월30일~10월30일까지 서울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연출을 맡은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최영환 교수를 비롯해 주요 제작진과 배우들이 모교 출신들로 구성됐다.

2022년도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총동창회는 2022년 한해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에서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인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 후보 자격 : 전 동국인 (교직원 등 포함)
- 추천 방법 : 상임위원 추천, 각급 지부/지회 회장 추천, 동창회원 5인이상 공동 추천
- 추천 분야 : 자랑스러운 동국인 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술, 봉사부문 등)
- 제출 서류 : 추천서, 후보자 이력서(사진 첨부), 공적서
- 추천 마감 : 2022년 11월 18일(금) 18:00까지

접수 및 문의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TEL. 02-733-0303 / FAX. 02-733-0306 / dongguka@naver.com
ADD.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우)03149



새로운 백년, 명문사학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본각스님 (철학 72入)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자기업주식회사

ISO 9001 인증

(토공, 비계, 철근·콘, 상·하수도, 금속창호, 포장)

대표이사

조 석 규

(토목 68入)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mediablossom

영상제작소 (010. 8743. 2415)

acheminée CONTÉ DE JOY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류&라이프스타일-공떼드조이 (www.contedejoy.com)

스킨케어 코스메틱 -아셰미네 (www.acheminee.com)

대표이사 | 최 지 훈
(경영학전공 · 2003)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길 162, 1-2층 (중동, 힐탑프라자)
Mobile: 010-4579-5664 Tel: 070-7721-7728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도화원(주)

종·합·건·설

대표이사 | 구 본 능
(미술사학과 · 2003)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71번길 52 (토당동)
Mobile: 010-3244-1569 Tel: 031-918-1569

三角山 靈佛寺



주지 지산 스님

(교대원 88入)

서울 성북구 정릉로 57-102

Tel. 02-914-7837

E-mail. yogakk@daum.net

‘등록금 걱정없는 대학’을 위해 밝히는 등불

송석환 25대 총동창회장 장학금 1억원 전달



송석환(농경64) 제25대 총동창회장은 10월31일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전영화(경행65) 제26, 27대 총동창회장과 박대신(국문69) 총동창회장이 함께 참석했다.

송 회장은 “모교가 2021년 대학평가에서 처음 9위에 오르는 성과를 달성하고 10월 대학 브랜드 평판도에서도 5위를 차지하는 등 위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총동창회는 모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동창회를 통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나눔과 배려의 품격을 지닌 송석환 회장님의 총동창회와 모교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기부의 뜻을 잘 알기에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석림동문회 장학금 1천만원 전달



석림동문회(회장 성우스님, 승가77)는 9월27일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은해사 조실 법타스님(인도철학67)과 삼천사 회주 성운스님(대학원 인도철학01)이 참석했다. 석림동문회는 모교 동문 스님들로 구성된 동문회로 얼마 전 입적하신 故월탄 대종사를 추모하기 위해 십시일반 합심해 모은 기금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석림동문회장학금으로 학인스님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운스님은 즉석에서 추가로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성운스님이 전달한 장학금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으로 삼천사가 위치한 서울 은평구 일대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여자총동창회 장학금 1천만원 전달



여자총동창회(회장 김애주, 영문76)는 9월26일 모교를 방문해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여자총동창회는 2014년부터 모교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십시일반 꾸준히 모금해 전달하고 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 후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애주 여자총동창회장은 “여자 총동창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후배들이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충미(교육81) 여자 총동창회 부회장은 “중앙일보 9위 등 학교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장학금을 모으고 기부하는 보람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부 소감을 보였다.

90학번 동문들 발전기금 및 장학증서 전달



90학번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린 10월 15일 심한경(법학90) 준비위원장은 행사를 위해 모금한 참가비와 후원금을 모교 발전기금과 20학번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20학번을 대표해 장학증서를 받은 이동주(미디어20), 최윤영(중문20) 학생은 “사회 각 분야에서 모교의 명성을 드높이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나가겠다.”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후배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달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인재 양성의 신념이 담긴 아름다운 기부 스토리

화공생물공학과 총동문회 5천만원 상당 실험실습장비 기증



화공생물공학과 총동문회(회장: 박현근)는 학과의 장비가 노후화되어 실험실습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전해 듣고, 곧바로 학과 실험 실습에 필요한 장비들을 수소문해 마련하고 7월 5일 모교를 찾아 5천만원 상당의 학과 실험실습 장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박현근(화공78) 동문회장이 대표로 있는 비엘텍코리아(주)는 수질 및 토양 자동분석기 제조 전문 기업이며, 이재홍(화공76) 회장이 운영하는 (주)아로마뱅크는 향료방향제 및 화장품 제조 전문 업체이다.

박현근 동문회장은 “후배들이 양질의 장비와 좋은 환경에서 실험실습을 하여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의 인재들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이 선배들의 마음.”이라고 전하며, “이번 기부가 지속적인 후속 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화공생물공학과 노향선 동문 발전기금 1억원 전달



노향선 동문(화공 78)이 8월16일 화공생물공학과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1978년에 화학공학과에 입학한 노향선 동문은 졸업 후 2000년에 화장품 제조 전문기업인 (주)나우코스를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학구열 또한 높아 모교에서 2005년에 화학공학 석사학위, 2021년에는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ROTC 20기로 임관해 2018년에는 ROTC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모교와 학과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부는 화공생물공학과 박상진(화공77) 교수와의 오랜 인연에서 비롯됐다. 학과 선후배이기도한 이들은 두터운 친분을 이어왔으며, 박상진 교수가 노향선 동문의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기도 했다. 노향선 동문은 이번 기부와 별개로 평소 화공생물공학과와 112학군단에 매달 정기적인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식품생명공학과 이황 동문 연극 ‘꽃말’ 공연 후원



이황(식공72) 동문은 연극공연 ‘꽃(에빌린)말’에 2천만원을 후원했다. ‘꽃(에빌린)말’은 모교 출신으로 구성된 백상컴퍼니가 제작한 연극으로 연출을 맡은 박문영 동문(연극학부51기)을 비롯해 총 16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창작 및 배우로 참여했다. 이황 동문은 “동국대를 대표하는 학과 중 하나인 연극학부 후배들이 열정을 펼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번 공연이 후배들이 공연 경험을 쌓고 예술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후원 계기를 밝혔다. 이황 동문은 현재까지 모교에 약1억원을 기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식품생명공학과 창립 60주년 기념 ‘중강당 좌석기부’ 모금, 식품생명공학과 장학기금 모금, 히말라야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모금 활동을 주도해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개교 116주년 기념 ‘기금조성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국 문학인 장려 기부 릴레이 14번째 주자 前 MBC 부사장



‘동국 문학인 장려 장학 릴레이 기부’ 14번째 주자로 권재홍 前 MBC 부사장이 참여해 기부금 1천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권 기부자는 1981년 MBC 공채로 기자로 입사해 40여년간 언론계에 종사하였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를 비롯해, 경제매거진M, 100분 토론 등의 MBC 간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고, 2014년도에 MBC 부사장, 2017년도에는 MBC플러스 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TV조선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부 릴레이에 참여한 계기는 지인인 김인수(농학76) 동문의 권유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 문학인 육성을 위한 기부 릴레이는 동문 뿐아니라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비(非)동문들이 참여해 릴레이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후원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후원금 납부시 성명·입학년도·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후 원 금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22년 7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접수분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장 학 금 1억원



송석환 (농림경제64)
제25대 총동창회장

고문 분담금 100만원



김종규 (경제58)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배시영 (경제58)
前 북미주총동창회 회장



원용선 (영어영문59)
남양이앤씨 회장



홍파스님 (불교63)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보광스님 (불교71)
前 동국대 총장

부회장 100만원



김재응 (경영65)
우성에이디엠 대표이사



박 순 (불교66)
前 불교학과 동문회장



민흥기 (법학68)
삼신화성산업 대표이사



김용구 (농업경제70)
O.S.E 대표이사



김용수 (영어영문73)
유성종합건설 회장

동국장학회 1,000만원



문선배 (경대원17)
신화종합건설 회장



서승훈 (정치외교73)
데오테크 대표이사



고천석 (정치외교76)
아모레퍼시픽 광남점 대표



정한중 (임학80)
대가유통 대표이사



신영태 (무역81)
티디에프코리아 대표이사



조충미 (교육81)
허준마을 작은도서관 관장

동국장학회 100만원



이상민 (농업경제82)
진원테크 대표이사



중호스님 (선학81)
동국대 기획부총장



고광훈 (화학82)
동명산업 대표



김태현 (불교84)
법무법인 창조 실장



황춘익 (불교02)
태평양관광호텔 회장

네이버 가격비교 1위!
 가성비 골프거리측정기!
 고객선물용 강력추천!
 ☞ 대량주문 031-309-0878

TWOHIM
Birdie Buddy PRO
 Golf Rangefinder



www.twohim.com
 🔍 투힘 버디버디 프로 | 검색

**84학번 동막골
 공식 거리측정기**

▶ **파격가 149,000원**

부회장 50만원

성해스님 (교대원88)

평생회원 50만원

김상훈 (통계83)
정성윤 (법학87)

지도위원 30만원

구자근 (법학86)
권기중 (불교60)
김동성 (정치외교73)
김보열 (경제57)
김창환 (경영65)
배충남 (상학59)
정태원 (법학59)
성영석 (경영67)
손학중 (농림경제65)
이광호 (행정74)
이재곤 (경제64)
이재욱 (정치60)
임선교 (경제58)
정재기 (정치외교64)
정천용 (국어국문63)

상임이사 20만원

강태호 (조경75)
구태회 (행대원87)
김용표 (불교69)
김윤묵 (행대원91)
대원스님 (불문원15)
박병은 (영어86)
박상래 (통계78)
박석만 (한의06)
박재호 (연극영화83)
변용찬 (경제88)
유여진 (미술71)
윤두욱 (생물59)
이상명 (경대원83)
이영안 (경영65)
이재필 (조경88)
이춘필 (불대원99)

정하성 (상학67)
최우봉 (전자계산79)
한범식 (행정80)

이사 10만원

곽노성 (전자69)
김도연 (문예대08)
김인중 (회계77)
김진관 (정치외교11)
김현진 (대학원07)
노유성 (사회81)
박명준 (건축공학71)
박상국 (불교69)
박수열 (행대원89)
박재구 (식품공학76)
박주곤 (경찰행정73)
박홍식 (회계91)
반석규 (경사원16)
법연스님 (불교18)
송 휘(송명숙) (서양화03)
신형철 (체육교육77)
신화섭 (화학84)
윤재웅 (국어국문81)
이승혁 (문예창작13)
이자연 (중어중문13)
장명준 (경제99)
장수정 (임학63)
전신섭 (경대원89)
정호경 (불대원95)
조시승 (경제69)
차대식 (사과대97)
하해준 (사과대00)

일반 회원 3만원

강윤석 (경영98)
강인영 (건축공학81)
강행부 (미래융합22)
강호석 (철학81)
고상원 (회계96)
고영섭 (불교84)
광해스님 (선학06)
기인중 (경제69)
길인호 (경제84)
김기태 (경대원94)
김석두 (불대원04)

김성광 (상학65)
김성욱 (일어일본80)
김술기 (경제01)
김영근 (경영71)
김영주 (건축공학67)
김영호 (경대원99)
김완석 (농학81)
김용문 (산업공학83)
김용삼 (경제59)
김용진 (경찰행정69)
김용홍 (화학공학83)
김원철 (영어영문68)
김중천 (수학79)
김준수 (경제86)
김중대 (경대원75)
김진태 (무역70)
김진희 (공업경영80)
김호성 (경영95)
남계동 (임학64)
남윤기 (사회86)
남대연 (회계86)
노정현 (행정91)
류관주 (농학76)
류기철 (대학원09)
류수택 (경영60)
맹주욱 (행정83)
문송국 (회계81)
문승덕 (행대원73)
박대신 (영어영문92)
박부남 (불대원98)
박상규 (연극영화70)
박성원 (북한97)
박세철 (회계93)
박세훈 (화학공학70)
박양수 (임학71)
박용철 (식품공학62)
박은철 (무역72)
박재철 (조경94)
박종울 (정치외교10)
박창구 (법학87)
박현정 (지리교육85)
백운성 (행대원97)
사현스님 (불대원02)
서문양 (경대원95)
서분도 (국민윤리82)
서상록 (행정78)
성춘광 (행대원01)
성행스님 (경기 의왕)
손창학 (건축공학81)

송인만 (법학81)
송호택 (경영82)
신태환 (법학63)
심경용 (법학67)
심성희 (국어국문93)
안주희 (불교81)
오혜성 (문예대96)
유정스님 (불대원00)
원영삼 (불대원96)
원영삼 (경제62)
이계연 (가정교육83)
이규상 (경제55)
이규현 (경제61)
이근우 (불교61)
이기순 (국어국문69)
이길자 (불대원03)
이길호 (회계84)
이덕성 (체육교육70)
이동원 (경찰행정90)
이상백 (체육교육81)
이상우 (체육교육83)
이성규 (행대원89)
이성민 (전자공학92)
이세준 (정치60)
이승후 (경대원88)
이여진 (화학69)
이연진 (철학69)
이영권 (대학원11)
이영석 (농업경제72)
이은기 (법학73)
이장기 (법학81)
이재동 (불대원09)
이창진 (불교02)
이종진 (경제90)
임만혁 (정치외교76)
임재천 (영어영문74)
장민수 (농업경제72)
장병수 (대학원10)
장세용 (회계89)
장재혁 (정치외교83)
장철환 (경영00)
장형순 (전기공학85)
전규림 (사회교육78)
전동표 (불대원02)
전현진 (교대원07)
정금연 (행대원72)
정수법혜스님 (불대원03)
정수웅 (경제64)
정유식 (법학86)

정의섭 (농업경제70)
정의영 (화학공학77)
정태수 (행대원72)
정 현 (화학91)
조덕빈 (수학91)
조순주 (행대원81)
조태희 (국어국문70)
조한구 (상학67)
조한운 (상학61)
조현철 (화학공학77)
주보연 (불교79)
진만스님 (승가77)
진준열 (조경77)
최경봉 (물리57)
최영희 (행대원09)
최종열 (토목공학82)
최종하 (경영68)
최중경 (사과대94)
최찬순 (상학63)
최해영 (경찰행정79)
최혁지 (법학73)
최효열 (경찰행정79)
최흥구 (건축공학77)
한주영 (불대원01)
호산스님 (불대원11)
홍영송 (연극영화62)
홍익표 (건축공학73)
황동웅 (경영83)

충남 옥련암 주지스님
미학인 (8명) 102

학부 / 대학원

- 서울캠퍼스 -

학부 15,220,000
대학원 4,920,000
영대원 1,940,000
경전원 920,000
불대원 640,000
행대원 1,380,000
교대원 860,000
연정원 380,000
문예대 1,940,000
국정원 920,000
법대원 680,000
경사원 1,160,000
교대원 240,000
미래융합 460,000

- WISE캠퍼스 -

학부 3,927,000
대학원 380,000
불대원 520,000
사과대 660,000
경대원 240,000

발전기금

동명사 월 2
누계 : 206
명선스님 (행대원74) 월 3
누계 : 21
안대영 (무역84) 10

동국장학회

이진혁 (화학75) 월 5
누계 : 520
이성훈 (정보97) 월 2
누계 : 98



제8의 동국가족 친선 골프대의

학과 · 학번, 대학원, 지역, 동호회 · 직장팀
| 일시 | 2022년 8월 30일 (화) 11:00 ~ 20:30
| 장소 | 태광 컨트리클럽 (경기도 용인시 기흥 소재)
| 주최 | 총동창회
| 주관 | 총동창회 사무처
| 후원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제8회 골프대회 협찬 내역

- 현금 협찬 -

문선배 (경대원17) 10,000,000
김진문 (경영64) 3,000,000
송석환 (농림경제64) 3,000,000
민흥기 (법학68) 2,000,000
성우스님 (승가77) 1,000,000
전순표 (농학53) 1,000,000
상록회 (회장 한법균) 1,000,000
홍종표 (행대원94) 1,000,000
홍파스님 (불교63) 1,000,000
황경환 (교대원87) 1,000,000
김문선 (전자공학79) 600,000
송관수 (회계78) 300,000
한우삼 (농학63) 300,000

- 현물 협찬 -

박대신 (총동창회장) - 골프티셔츠 130벌
타올 150개
권준명 (임학78) - 골프장갑 130개
오정석 (농학72) - 와이 5세트
오준호 (건축공학84) - 거리조정기 5개
윤성이 (동국대 총장) - 골프공 130세트
45형 TV 1대
이범주 (식품공학78) - 마스크팩 130개
샌크림 130개, 앰플 5개
이영경 (WISE캠퍼스 총장)
- 블루투스 스피커 1개
- 워머 130개
한외과대학동창회 - 경옥고 10세트

ETEVERS advertisement with image of a modern building and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ext: Challenge for Transformation.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발상과 IT환경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IT솔루션을 준비합니다. Includes logos for ETEVERS, ETECH SYSTEM, and various divisions like 그룹사, eBT, ePA, SOFT, E&L.

동해북부선 남강릉 ↔ 제진

동서고속화철도 서울 ↔ 속초

속초

강원특별자치시시대!
미래를 여는 도시 속초!

속초 sokcho

제진 Jejin 강릉 Gangneung

속초시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
United Citizens, Forward-looking Sokcho!

Hana Capital

오토리스 · 렌터카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대표전화 1800-1110